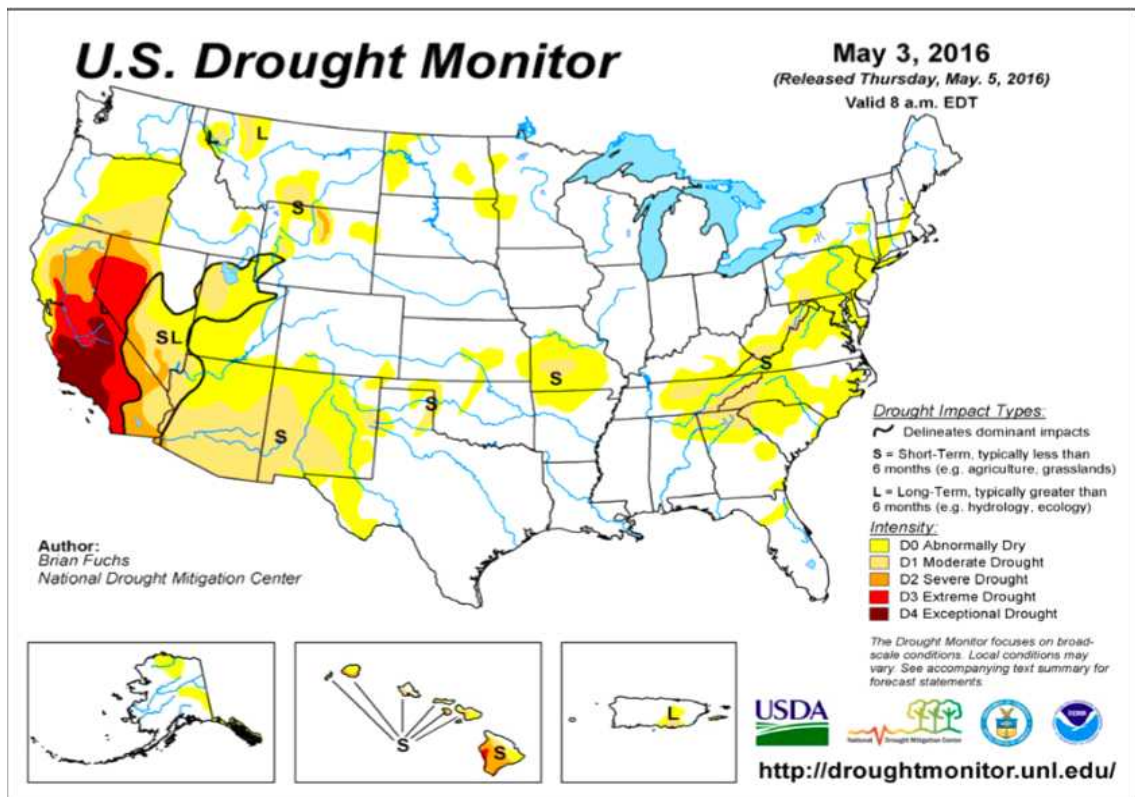


5월 1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19)

□ 미국 기후 현황(5/1~5/7)

동부 대부분의 지역과 서부 일부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부터 내륙 산간지역 서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동부 대부분 지역에서 몇 주간 이어졌던 가뭄을 해갈해 주었다.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 일부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강우량은 2~4인치 내외를 기록했다. 옥수수 재배지 동부 일부에서는 비가 조금 내렸고, 서부 일대에서는 지난 주 내린 비로 파종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미시시피강 인근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져 옥수수와 대두 파종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남부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와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로 인해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플로리다는 주 중반에 많은 비가 내렸다. 서부 일부 지역은 주 후반부로 가면서 비가 내렸는데, 와이오밍 일대에는 특히 많은 비가 내렸다. 대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부터 중서부 일대에 이르는 지역은 평년에 비해 따뜻한 기온을 보였다. 북서부 내륙 일부 지역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10°F 정도 높았다. 지난 5월 5일과 6일에는 중서부 일부 지역의 기온이 90°F 이상 오르기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동부 일부 지역은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을 보였다. 특히 남동부 평원과 대서양 연안 북부지역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5°F 이상 낮았다.



□ 농업 현황 요약(5/2~5/8)

북서부에서부터 중서부 북부 지역 일대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고,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오레곤과 노스 다코타 일부 지역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최소 9°F 이상 높았다. 남서부와 북동부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았고, 특히 남부 대평원, 델타, 뉴 잉글랜드 등은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 이상 낮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파종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몇 개 주와 루이지애나, 와이오밍 등에는 3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5/1~5/7)

■ 유럽: 서부와 북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렸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남동부, 폴란드 북부 등에서는 옥수수, 해바라기 등의 파종작업이 재개되었다. 보더 남부지역에는 비가 내렸는데, 폴란드 남서부와 발칸반도 일부 지역에 5~4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헝가리 동부 일대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도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렸고, 겨울작물의 수확전망은 매우 밝은 상황이다. 발칸반도 남부 일대에는 10~6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여름작물의 파종작업이 지연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1~3°C 정도 높았다.

■ 구소련(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겨울작물의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비로 인해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찾아왔고, 강우량은 5~30mm 내외였다. 이번 비로 여름철 작물과 봄밀 파종작업이 지연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했고, 밤 기온도 영상 수준을 유지했다.

■ 동아시아: 동부 대부분의 곡창지역에 비가 내렸다. 북동부에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옥수수, 대두, 쌀 파종작업이 진행되었다. 남부와 북부 고원 남쪽 일부 지역에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그 밖의 북부 고원 지역에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고, 낮 최고기온은 30°C까지 올랐다. 반면, 남부 일대는 50~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한국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기온은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다. 북한과 남한 서부 일부지역에는 50~150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면화 등의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지만, 봄철 작물의 발아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주 후반에는 따뜻하고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농작업이 재개되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지역에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빅토리아주 동부에도 비가 내려 밀, 보리, 카놀라 등의 파종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와 달리, 빅토리아주 서부 일대는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그 밖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5~1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서부 일대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1~2°C 정도 높았고, 그 밖의 밀 재배지역도 평년에 비해 기온이 1~3°C 정도 높았다.



■ 아르헨티나: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여름 작물의 수확작업에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Santa Fe, Entre Rio 등 지난주에 많은 비가 내렸던 지역은 비가 그쳤고, La Pampa, Buenos Aires 서부 일대는 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은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조금 낮았고, 밤사이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La Pampa, Buenos Aires 등은 낮 최고기온이 10°C 중반에서 후반까지 올랐고, Formosa는 30°C 초반까지 기온이 올라갔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5월 5일 기준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21%, 41%이며 이는 2015년 같은 기간의 35%, 72%에 비해 느린 편이다.

■ 브라질: 중부 일대는 이례적으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작물의 생육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Mato Grosso 중부와 남부, Minas Herais 동부 등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Bahia, Tocantins 남부와 북부 및 Sao Paulo 등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5°C까지 오르기도 했다. Mato Grosso 북부의 곡창지역과 북동부 내륙의 Piaui, Maranhao등에도 10~25mm, 많게는 50mm 정도의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do Sul 남부, Parana 등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비가 내렸다. 이들 남부 농경지역은 지난 한 주간 낮 기온이 20°C 내외에 머물렀다.